

유엔, 홍콩 폭력사태 차분한 대응 촉구

인권대표실 "상황 악화 막아야" 이란 시위대에 실탄 사용 우려 이스라엘 정착촌 위법 입장 확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이 19일(현지시간) 날로 격화하는 홍콩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위대와 경찰에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이날 시위대 일부가 극단적인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당국에도 100명 정도의 시위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콩 이공대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전날 반정부 시위대의 '최후 부름'인 홍콩 이공대에 진입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제 해산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가 캠퍼스에서 도망치려 하자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가 이후에는 이공대를 전면 봉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600명이 캠퍼스를 나왔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400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이공대 내에 잔류 중이다.

콜빌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상대로 실탄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당

국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시위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단된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고 시위대에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를 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와 그에 따른 경제 제재 복원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

난 15일 휘발유 가격을 50% 전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한 시민들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곳곳에서 며칠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콜빌 대변인은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뱅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이 바뀌었

다고 해서 기존의 국제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해석이 수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유엔은 지난 2016년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정착촌 건설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이 19일 홍콩이공대 인근 침사추이 지역의 솔즈베리 가든에 모여 휴대전화 불빛을 밝힌 채 홍콩이공대 안에 남아 있는 시위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 환영"...태국 병원 마당에 교황 조각상 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자와 장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인 방콕의 세인트루이스 병원 마당에 실물 크기의 교황 조각상이 세워져 19일 간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AI, 도쿄대 입시 영어과목도 '거뜰'

3년만에 95점→185점... "합격자에 손색 없는 점수"

"200점 만점에 185점(편차치 64.1)" 인공지능(AI)이 올해 1월 실시된 한국의 수능시험격인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영어 과목에서 거둔 성적이다. '로봇이 도쿄(東京)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프로젝트팀(일명 東ロボ군)은 이런 실증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9일 보도했다.

3년 전인 2016년 유력 입시학원의 대학입시센터시험 모의고사에 도전했을 때의 성적이 95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이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연구팀은 "주관식으로 실시하는 2차 시험은 어렵겠지만 센터시험 성적으로만 보면 도쿄대학 합격자에 손색이 없는 점수"라고 강조했다.

모의시험이 아닌 대학입시센터시험 본고사를 대상으로 한 AI 성적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된 요인으로는 AI 관련 첨단기술인 '딥러닝(심층학습)'을 토대로 한 문장해독기술 진보가 꼽힌다. 지문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찾아내는 문제 등 종전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던 분야에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 정답률을 크게 높였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다고 한다.

이번에 좋은 점수를 얻은 AI는 과거 센터시험에도 도전했다. 2017년 시험문제에서는 169점, 작년 시험문제에서는 167점을 얻었다. 앞서 모의고사에 도전했던 2016년 당시의 AI로 같은 문제를 풀게한 결과 2017년 시험문제에는 102점, 작년 문제에서는 95점, 올해 문제에서는 83점을 얻는데 그쳐 AI 자체의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中, 홍콩인권법안 美상원 통과에 "중단 않으면 반격"

외교부 "내정 간섭 강력 규탄"

홍콩 행정구 정부도 유감 표명

중국 외교부가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을 강하게 규탄하고, 미국이 이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耿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 대변인은 미국에 "벼랑 끝에서 말고 뼈를 잡으라"고 경고하면서 "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조치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고집대태 한다면 중

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 대변인은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미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폭력 시위대를 부추기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한 기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악랄한" 행동은 중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발전을 막으려는 어떠한 수작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 시위와 관련해 미국 등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양광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관공실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규탄했다. 그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일국

양제'를 실현하는 데 대한 결의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발등 찍는 일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중앙정부 홍콩 연락관공실도 일제히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쏟아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도 성명에서 홍콩 관련 법안이 필요도, 근거도 없으며 홍콩과 미국 양쪽의 관계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극도의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가결한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은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법안에는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사를 제재하는 조항도 있다. /연합뉴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전자담배 수입·사용 금지

공공장소서 피우면 체포"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전자담배가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전자담배의 수입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누구라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에서 6개월간 전자담배를 피우던 16세 소녀가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으로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피치, 중국 국가신용등급 A+ 유지

"내년 성장률 5.7%로 둔화"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피치는 내년 중국 성장률은 5.7%로 올해 6.1%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12월 중순 중국산 소비재 1천500억 달러에 발표될 예정인 15% 관세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

고 피치는 설명했다.

다만 피치는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최근 진전을 보여 기존 관세 일부가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피치는 성장률 압박에 대응한 중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중국 당국이 올해 말까지 사실상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LPR)를완만하게 인하해갈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